

한국경제 3가지 그늘

- 1 수출 역주행
- 2 달러 땀박질
- 3 불안한 유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영화속 얘기처럼 한국경제가 거센 풍랑에 흔들리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여기에 달러값과 금리, 유가가 치솟으면서 한국 등 신흥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3% 경제성장률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중국수입 제한 땀 한국 생산 GDP의 1.1% 감소

G2(미국·중국) 무역전쟁의 불똥이 한국경제로 튀고 있다.

한국의 4월 수출은 500억6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작년 같은 달보다 1.5% 줄었다. 2016년 10월 이후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한 70.3%로,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던 때인 2009년 3월(69.9%) 이후 가장 낮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미국의 무역전쟁 전선이 넓어질 수록 주변국 통상정책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미·중 간, 혹은 미국과 주변 국가 간 보호무역장벽이 높아질 경우 두 나라에 대한 직접 수출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

통로의 특성상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물량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을 상품 성질별로 나눠보면 원자재 30%, 자본재 65%, 소비재 5% 가량이다. 즉, 중국 내수 시장으로 직접 팔려가는 소비재의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자본재 비율이 95%에 달한다는 의미다. 중국이 미국 등의 국가로 수출하기 위한 중간다리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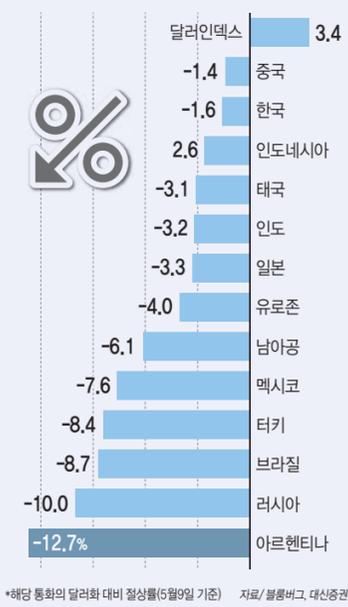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가량 수입을 줄이면 한국은 GDP 대비 0.7%(직접적 0.3%, 간접적 0.4%) 생산감소를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반발해 중국이 GDP 대비 1% 규모로 수입을 제한한다면 대중무역 익스포저(위험노출)가 큰 한국의 생산은 GDP의 1.1%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직접적 영향이 0.5%, 간접적 영향이 0.6%다.

한국은행도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도 0.36% 동반 감소할 것이라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 윤창용 연구원은 “G2 간 마찰이 무역 전쟁으로 번진다면, 물동량 위축과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4월 이후 취약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율



*해당 통화의 달러화 대비 절상률(5월9일 기준) 자료/블룸버그, 대신증권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로 미국에서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고, 미국의 기술유출 제약으로 중국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부채의 폐단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G2 간 무역 전쟁은 신냉전 체제 부활의 도화선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 4월 수출 18개월만에 감소세 달러강세로 원화 가치 -1.6% 하락 국제유가 80달러 고지 돌파 ‘복병’

◆뛰는 달러값과 금리, 신흥국 위협

달러 강세로 신흥국 시장에는 이미 경 고음이 울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 인덱스는 4월 이후 3.4%나 뛰었다. 국제 금율을 요청한 아르헨티나는 폐쇄화 가치 방어를 위해 6일 동안 외환보유고의 10%(50억달러)를 소진한 것도 모자라 기준금리를 40%까지 올렸다. 신흥국 외환 보유고는 제한적이어서 통화 가치 하락을 막으려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

(G2 무역 분쟁의 예상 시나리오)

Worst ← G2 무역분쟁 → B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 부과 -지식재산권/특허 도용 패널티 부과 -중국 기업 진출 제한 -위안화 절상 압박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기업 진출 허용 및 기술이전 -중국 환율 조작국 미지정 -하나의 '중국' 존중 -한반도 전략무기 배치 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복 관세 부과 -미국산 제품 수입 억제 -미국 국채 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국채 투자 확대 -지식재산권/특허 등 비용 지불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외교: 신냉전 체제 부활 -금융: 미국 구축효과와 중국 기업부채, 시장 패닉 -실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외교:美中간 선거 승리, 中외교적입지 확보 -금융: 미국 구축효과 차단, 위험자산 투자심리 회복 -실물: 美확장적 재정정책, 中제조업 2025 프로젝트

다. 터키, 러시아, 브라질의 통화 가치도 급락했다.

원화 가치도 4월 이후 -1.6% 하락했다.

대신증권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환율변동성 확대가 신흥국 경기 전반의 펀더멘탈 약화 또는 가파른 달러화 강세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현 시점에서 2013년과 같은 긴축발작(Taper Tantrum)을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이 높아지는 등 외부충격에 대한 대처능력이 좋아졌다는 점 등이 신흥국 경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리 상승도 한국 등 신흥국 경제에 위협 요인이다. 올해 들어 미 국채금리가 3%를 찍을 때마다 증시에서는 투매 현상이 일어났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2017년 신흥국은 국채 등 7조7000억달러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했다. 이중 8000억달러는 외화표시 채권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투자자들이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했다. 2017년 신흥국 펀드에 투입된 700억달러 중 40억달러가 3주 동안 유출됐다.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코스피 영업이익 ↓ 국제유가도 복병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1.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도 각각 배럴당 74.73달러, 77.47달러를 기록하며 80달러 고지 돌파를 눈앞에 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이란의 원유 공급 감소 등의 이유로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이 이란 제재를 본격화할 경우 이란산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던 2011년~2014년 코스피 상장사 1 전체 영업이익률은 7.5%에서 5.1%로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상승하면 실질 GDP는 0.22%, 80달러로 오르면 실질 GDP는 0.96%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80달러까지 오르면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약화로 소비가 0.81% 줄어 들고 기업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등으로 투자는 7.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올라 석유제품의 제조 원가가 7.5% 상승 압력을 받고 이에 따라 석유제품 원가 비중이 높은 화학·운송 산업에서 생산비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민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정부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중대형 아파트값 상승폭이 중소형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한채보유 심리에 중대형 아파트 다시 뜬다

올해 주택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상승세가 눈길을 끌고 있다.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인기 배경은 높은 희소 가치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가 꼽히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18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의 집값 상승률이 85㎡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낸 평형은 전용 135~165㎡형이다. 전년 대비 평균 6.71% 올랐다. 이어 전용 165㎡ 초과 주택이 평균 6.6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용 85~102㎡는 6.54%로 전국 평균(5.63%)을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반면 전용 60~85㎡ 이하는 4.54% 오르는데 그쳤다. 그동안 높은 인기를 누렸던 중소형이 주춤하는 사이 중대형이 반등의 기회를 잡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금부담이 커지면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청약물량 전부를 가점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청약조정 지역도 75%로 가점제 비중을 높였다. 상대적으로 가점이 높지 않은 30~40대 수요자들의 관심이 중대형으로 쏠렸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중대형 아파트는 올해 분양시장에서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4월 경기 하남시에 선보인 ‘하남 포엘시티’는 평균 26.29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전 주택형 1순위 마감률 달성했다. 중대형 타입인 전용 90㎡T형이 92.7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용 84㎡의 청약경쟁률(45.29대 1)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정연우 기자 ywj964@

운전의 즐거움... BMW, 6세대 뉴 M5 공개

사륜구동 시스템 M xDrive 탑재
실용적이고 스포티한 차체 디자인

BMW그룹 코리아가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과 고성능 스포츠카의 특성을 융합한 6세대 신형 ‘M5’를 국내 공개했다.

BMW코리아는 14일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린 ‘BMW M 익스피리언스 2018’에서 ‘뉴 M5’를 출시했다. BMW 고성능 브랜드 M을 알리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뉴 M5뿐 아니라 뉴 M2, M3 및 M4 컴페디션 모델 등 다양한 M 모델을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984년 처음 출시된 M5는 출시 이래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즈니스 세단으로 자리매김했다. 6번째 변신을 거듭한 신형 M5는 M시리즈 최초로 사륜구동 시스템인 M xDrive를 탑재해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주행을 선보이며, 최고급 세단에 어울리는 넓은 공간과 첨단 주행보조 기술 옵션, 편의사양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이상적인 일상 주행 성능은 물론, 운전의 즐거움과 탁월한 트랙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M xDrive는 후륜구동(2WD), 사륜구동(4WD), 사륜구동 스포츠(4WD Sport) 모드로 구성돼 있으며, 도로 상황이나 운전자 취향에 따라 원하는 모드로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뉴 M5는 M 트윈파워 터보 기



BMW 6세대 뉴 M5 주행모습.

솔이 점목된 최신 4.4리터 V8 트윈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608마력, 최대토크 76.5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 가속에 걸리는 시간은 단 3.4초에 불과하다.

디자인도 차체부터 바뀌었다. 앞 범퍼는 냉각 시스템과 브레이크에 충분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종전보다 더 크게 디자인됐고, 정교한 라인이 적용된 알루미늄 보닛과 M 전용 더블 스트럿 키드니 그릴 등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M5 모델

최초로 루프를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로 제작해 경량화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새롭게 디자인된 리어 디퓨저와 M 리어 스포일러, M 전용 트윈 테일파이프를 통해 강력하고 스포티한 외관으로 거듭났다.

BMW 뉴 M5의 가격은 1억4690만원(VAT 포함)이다. BMW 뉴 M5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BMW 전시장이거나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성문 기자 ysw@